"중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 정보 유용해요"

거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자녀
중1, 초4

구독 기간
약 6개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공동 구매를 통해 〈내일교육〉을 알게 됐어요. 주변에 교육이나 입시 정보를 물어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중1, 초4라 본격적인 입시를 준비할 시기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이나 달라지는 입시 정보를 조금씩 알아두면 나중에 방향을 잡아줄 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보기보다 제가 교육과 입시 정보를 얻는 데 주로 활용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교육과정이나 입시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요. 독서나 문제집에 관한 조언처럼 지금부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참고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 독서 관련 기사는 관심 있게 봅니다. 어떤 책을 권하면 좋을지 감을 잡을 수 있어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도움이 돼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중1인 큰아이의 고교 선택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아직 명확한 목표나 희망 진로가 있는 것은 아니라

서 일반고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니까요. 지금은 아이의 성향을 지켜보면서 어떤 고교가 잘 맞을지, 부모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가고 싶어요.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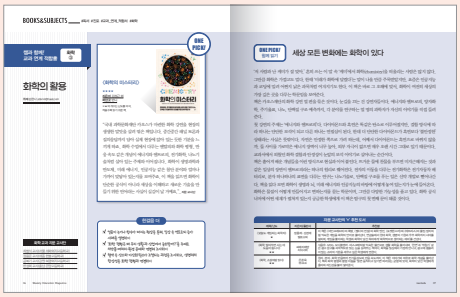
대입뿐 아니라 고입과 중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중학생인 아이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학습·진로 기사도 있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전통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전공만 고집하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고 원하는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아이돌이나 인플루언서처럼 청소년에게 친숙한 인물의 인터뷰 기사에 자신의 진로를 찾아간 과정과 노력 등을 담는다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eporter's A/S

중1이라면 입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 흥미를 보이는지 함께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내일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을 만나는 '꿈 찾는 생생 일터뷰'와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슈 인터뷰'및 독서 관련 기사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인물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관련 직업이나 전공, 책으로 관심사를 넓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입 정보와 중학생도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전하겠습니다.

1214호
'내게 맞는 과목·전공·직업은?
중학생을 위한 진로검사 가이드' 기사 참고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248호

샘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書 | 화학 ③

화학의 활용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서 어떤 책부터 권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아요. 소개된 책을 모두 읽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책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며 권해줄 수 있어서 독서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1239호

꿈 찾는 생생 일터뷰 |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이지선 수석연구원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칩, 반도체의 미래를 찾아요

"직접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어요. 정보만 나열된 기사와 달리 실제 경험을 통해 들려주니 아이의 교육과 진로를 고민할 때 참고하기 좋더라고요."